

자동차분야 표준화현황



자본재표준과 공업연구사 김홍준
(02)509-7284 hjkim@mocie.go.kr

개 요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는 3만개이상 부품으로 구성된 첨단기술 집약체로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11.05%를 차지할 만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전체 생산의 68.6%를 수출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안전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표준이라는 무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무역장벽 내지 국제시장에서의 무역 활성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는 국제적 표준의 무대에서 문외한에 가까울 만큼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표준화 부문위원회는 앞으로 국가표준 정책에의 제안,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유대관계 형성, 국내 완성차 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의 정책적 표

준화 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중요성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를 세계의 표준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저 한다

현재, 자동차 표준화 부문위원회는 10여년간의 산업표준심의회를 운영해온 정태용 교수(국민대학교)을 위원장으로 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김홍준 연구사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이일수 팀장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중 국제표준화의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을 필두로 2006년 활동의 시작하였다.

자동차 분야 표준화 현황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표준화 정책, 관리, 국제표준화 활동 등의 총체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된

표준은 자동차일반, 시험검사방법, 공통부품, 기관, 차체, 전기장치, 계기, 수리조정시험, 수리기구의 9개 분야의 구분으로 총 886개의 한국산업규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규격의 기술적 검증과 산업계 현황 반영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심의회 산하에 수송기계부회를 필두로 자동차 각 기술분야별로 총 17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시장에서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WTO의 협약사항에 맞추어 총 329종의 국제표준을 국내 표준으로 도입하여

기술적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였다.

자동차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은 ISO(국제표준화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ISO는 총 192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 관련 기술위원회는 TC22(도로차량)로서 총 23개의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운영하여 총589개의 자동차 표준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TC22 분과위원회 현황

SC 1	Ignition equipment
SC 2	Braking systems and equipment
SC 3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SC 4	Caravans and light trailers
SC 5	Engine tests
SC 6	Terms and definitions of dimensions and masses
SC 7	Injection equipment and filters for use on road vehicles
SC 8	Lighting and signalling
SC 9	Vehicle dynamics and road-holding ability
SC 10	Impact test procedures
SC 11	Safety glazing materials
SC 12	Passive safety crash protection systems
SC 13	Ergonomics applicable to road vehicles
SC 14	Exterior fittings
SC 15	Interchangeability of components of commercial vehicles and buses
SC 16	Reduction of fire risks
SC 17	Visibility
SC 19	Wheels
SC 21	Electric road vehicles
SC 22	Motorcycles
SC 23	Mopeds
SC 25	Vehicles using gaseous fuels
SC 26	Accessibility of vehicles to the physically handicapped

우리나라도 2000년 초반부터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정책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미 112명의 전문가를 ISO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2003년 “내연기관” 관련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부상과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ISO/TC22/SC9(차량주행안전성), SC10(충격시험절차) 및 SC12(승객보호장치) 의 2007년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는 등 국제 표준화 활동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

금년 새로이 발돋움을 한 자동차 표준화 부문위원

회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 선도를 이끌어 가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참여하고, 국제표준화 동향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자동차 국내 전문가들의 정보마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 분야인 미래형 자동차, 안전 및 환경보전 관련 표준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수요 표준화 영역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화에 경험이 풍부한 국내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해나가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미래형자동차 국제표준화 세미나”를 통한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활동 강화를 금년의 당면과제로 수행할 것이다. **표준**

